“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6호 HYUNBULNEWS.COM 2025년 11월 26일(음력 10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아들아 억울함 풀고 마음 편히 쉬렴” 산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가 1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체감 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한파에도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이 모두 극락왕생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발원했다. 2년 전 디엘이엔씨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고 강보경 씨의 어머니 이숙련 씨가 오열하며 아들의 위패를 어루만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글=임은호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조계종 원로의원 도영 대종사 원적

20일 완주 송광사 약사전서
종단 포교 기틀 마련 선지식
24일 금산사서 원로회의장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조실인 금산당 도영 대종사(전 조계종 포교원장·사진)가 11월 20일 오전 5시 20분 완주 송광사 약사전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5년, 세수 84세.

도영 대종사는 1941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60년 김제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통도사 극락암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 정진했다.

금산사 주지를 맡아 가람을 일신하고, 전북불교회관과 죽림정사 등을 건립하며 불교 현대화에 기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역임하며 수행과 포교에 진력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금산사와 완주 송광사 조실로 후학들을 제접했다.

도영 대종사는 지난해 본지 기획 연재 ‘지상백고좌’를 통해 불자들에게 지상법문을 설했다. 이는 대종사의 마지막 불교계 언론 인터뷰가 됐다.

당시 도영 대종사는 ‘보살의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대종사는 “보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中道)’이다. 넘치지 않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면서 “주변부터 진실하게 챙기는 보살의 삶을 서원하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영 대종사의 영결·다비식은 11월 24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美 떠돌던 신흥사 ‘시왕도’ 70년 만에 환수

신흥사 · 메트로미술관, 11월 14일 협약

미군정 시기 반출 추정 1점 반환
민간단체서 시작…“반환 본보기”
2020년 6점…10점 중 7점 제자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전쟁 이후 미군정 시기 미군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속초 신흥사 ‘시왕도’ 일부가 7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특히 이번 반환은 본 소장처인 신흥사와 민간단체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주도로 2023년부터 반환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이룬 성과로, 한국 불교 회화사뿐 아니라 문화유산 반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국외소재문화재단(사무총장 곽창용, 이하 재단),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이사장 이상래,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14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관장 겸 CEO 맥스 홀라인, 이하 미술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술관 소장 불화 ‘시왕도’를 본 소장지였던 신흥사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하기로 했다.

‘시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서 심판을 주관한다는 열 명의 대왕을 그린 불화로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번에 귀환한 신흥사 ‘시왕도’는 1798년(정조 22년) 조성된 ‘제10오도전륜대왕도(第十五道轉輪大王圖)’다. 가로 91.4cm, 세로 116.8cm 크기로 정교한 필선과 채색이 돋보인다. 원래 신흥사 명부전에 걸려 있던 불화로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역사적 중요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42년 일제 조선총독부가 전국 주요 사찰의 재산 목록을 조사한 기록에는 시왕도가 남아 있으며 1953~1954년 미군 장교들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 이상래 위원회 이사장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경, 속초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에 의해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 측은 2007년 시왕도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속초 신흥사 시왕도 중 제10오도전륜대왕도. 사진 제공=메트로폴리탄미술관

신흥사 ‘시왕도’ 반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미국 LACMA(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6점의 ‘시왕도’가 이미 한국으로 돌아왔고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위원회와 신흥사는 2020년 6점 반환 후 나머지 시왕도를 찾기 위해 조사에 임하던 중 미술관 누리집에서 시왕도를 확인했다. 이후 2023년부터 미술관과 협의를 시작, 실태조사를 통해 작품이 신흥사 ‘시왕도’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술관에 공식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7월 재차 방문 협상에서 반환 합의라는 결실을 맺었다.

미술관은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소장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화유산의 본래 의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며 글로벌 문화기관으로서의 성숙한 책임감과 문화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국가유산청과 재단도 민간단체를 지원하며 문화유산 반환과 국제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쓴 사례이기에 더 뜻깊다.

신흥사와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는 나머지 시왕도 3점의 행방을 찾아 환지본처 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법 철회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19일 성명
의장단 · 상임분과위 입장문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최근 세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속개한 제236회 정기회에서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에서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고, 종교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제행사가 아닌 천주교의 선교를 위한 종교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안에는 △시설 신축비를 지원한다 △수익사업을 허용한다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등 불법적인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며 “헌정사상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사례는 없다. 정교 유착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특별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 위원장들도 11월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법은 헌법 정신과 국회의원의 의무에 어긋나는 입법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종교적 균형과 조화를 해치고 국민과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승려복지 및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후원 동참 안내

무량공덕 쌓는 승보공양

우리 종단은 스님이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는 출가 수행자의 교육·의료·주거·소득·장례 등 완전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사찰,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의 승보공양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를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원금 지원 내용

스님 복지비 지원	아미타불교요양병원 지원
- 진료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진료비 지원 - 병원 운영 및 개선비 지원 - 제2병동 건립 * 재가불자 이용 가능

후원 동참 방법

- CMS 자동이체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전송
  (사찰 종무소 비치,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전화 신청 : 02-2011-1981, 1982 / 010-2926-1726(토,일 휴무)
- ARS 전화 후원 : 060-700-1077(1통화 5,000원)
- 계좌이체 후원
  - 승보공양 : 농협 301-0324-8575-91 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회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농협 317-0027-0531-51
    의료법인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

문의

- 승려복지회 : 02-2011-1981 / 010-2926-1726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02-2011-1982 / 031-677-2613
  1752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 승보공양 후원 시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연말소득공제 및 기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로서
위의를 잃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자비를 펼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은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